

선암사 '대각국사중창건도'연구

-제작시기와 배경을 중심으로-

홍 병 화*

(불교문화재연구소)

주제어 : 선암사, 도선, 대각, 청허계, 부휴계, 편양파, 송광사, 태고법통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암사에는 수목담체의 '대각국사중창건도(이하 중창건도)'라는 사찰도가 전해진다. 주변의 산세와 선암사의 전각들이 비교적 잘 묘사된 이 그림은 지금까지 제작시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그림은 상단의 기록을 통해 선암사의 풍수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그림의 묘법과 표현된 요소 등을 통해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이 그림은 선암사의 건축을 이해하는 데는 빠지지 않고 인용되고 있으며, 간혹 고려시대 건축의 일면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는 물론 불교미술사, 일반회화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¹⁾ 그렇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진 것인지, 무슨 이유로 그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 그림에 나타나는 다양한 건축요소와 당시 선암사를 둘러싼 불교계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제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2. 범위와 방법

이 그림이 비록 대각국사가 중창할 당시의 현상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모두가 조선시대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번 연구도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태호, 「일제강점기에 전승된 開花形 사찰지도 - 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의 전경도 및 그 형식적 연원에 대하여」 『고지도연구학회지 제2권 제2호』, 2010, 5~34쪽

저자	저작	추정시기
이영숙	『선암사』	1760년 ~ 1824년
김재식	『조계산 선암사의 택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1660년 이전
김왕직	『선암사 대응전 수리 및 실측보고서』	1759년 이전
이태호	「일제강점기에 전승된 開花形 사찰지도」	19세기 후반

<기존 연구성과의 정리>

* 교신저자, 이메일: dopyunsoo@hanmail.net

1) 이영숙, 『선암사』, 승주군, 1992, 174쪽
 김재식, 『조계산 선암사의 택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7, 25~27쪽
 김왕직, 「II. 역사 및 건축」 『선암사 대응전 수리 및 실측보고서』, 2002, 79~86쪽

그림 속 선암사와 실제 선암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비교하는 방식은 대체적 건축현상이 묘사된 부분과 實在했던 건축형식 및 존속기간을 비교하여 그림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좁혀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상량문과 사적기와 같은 관련기록을 비교분석하겠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대작불사에는 배경 및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불사의 계기는 바로 당시 선암사와 선암사를 둘러싼 인문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사의 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불교계의 동향과 이에 대한 선암사의 대응을 같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중창건도가 그려진 시기를 압축하고, 그 시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제작시기와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중창건도의 구성

수묵선묘만으로 그린 이 그림은 화면의 상단에 ‘曹溪山仙岩寺大覺國師重創建圖記’가 적혀있다. 이 기록의 주요내용은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선암사 주변의 지세와 선암사의 건물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말미에 내용을 적은 시기가 ‘高麗毅宗元年丁卯三月二十三日’이라고 적고 있어, 1147년에 대각국사(1055~1101)가 선암사를 중창하고 반세기 정도가 흐른 선암사의 현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산세 표현

화면의 중앙부에 鳥瞰法을 사용하여 선암사의 경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²⁾ 주변으로는

2) 鳥瞰法과 俯瞰法은 모두 대상을 위에서 내려다 본 건축역사연구 제21권 3호 통권82호 2012년 6월



<그림 1> 대각국사중창건도(선암사소장)

조계산이 둘러져 있는데 봉우리는 주로 그림 위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하단의 대옥녀봉, 소옥녀봉 등의 봉우리들은 그림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二方視로 표현되어 있다.³⁾

선묘로 산세를 표현하고 건필로 문질러서 산봉우리에 입체감을 주고 있는 이러한 표현법은 전형적인 19세기 민화풍 표현이라고 한다.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 두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새의 시각으로 내려다본다는 의미의 조감법을 사용하였다. 필자요약.

3) 이태호, 앞의 논문, 12~13쪽

이 논문에서는 중창건도에 사용된 이방시 표현을 조선 초에 그려진 『海東諸國記』에 1474년 追錄된 <동래부 산포지도> <웅천제포지도> <울산연포지도>의 이방시 표현과 연관 짓고 있다. 이 세 개의 지도는 고려의 도법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조선 초기 지도이기 때문에 중창건도에서도 이방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고려 시대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선암사를 두르고 있는 조계산의 산세는 마치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같은 표현법은 풍수의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山圖의 영향이라고 한다.⁴⁾

조선후기에는 開花形 산세표현과 사방에서 지도를 읽을 수 있는 四方視法이 일반화되어 가지만 중창건도와 같이 개화형 이면서도 이방 시법을 지키고 있는 그림은 模本을 두고 그대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2. 기록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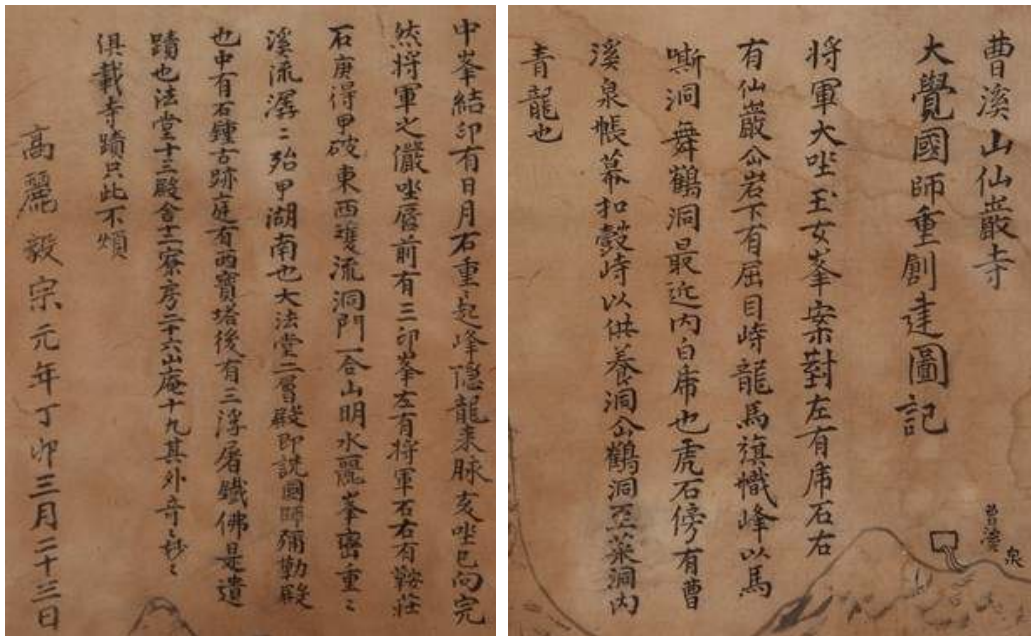
그림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記文은 그림의 상단 장군봉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7행과 8행씩 기록되어 있다. 기록의 제목은 '曹溪

대한 묘사이며, 內白虎·內靑龍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전각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는 '大法堂二層殿 卽說國師彌勒殿也'라고 하여 주불전에 대한 기록은 물론, 안마당의 쌍탑 및 석종, 그리고 山中塔으로 알려진 세 개의 승탑과 철불 등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⁵⁾

그런데 이 기록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大覺國師의 중창이라는 제목과 내용 중에 나오는 (道)說國師의 미륵전이라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목으로만 본다면 고려중기의 대덕인 대각국사 의천의 중창당시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림에는 도선과 관련이



<그림 2> '중창건도기'부분(右에서 左로)

山仙岩寺大覺國師重創建圖記'로 선암사를 두르고 있는 四方神의 이름과 주변의 지형지물에 대해 모두 적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암사를 둘러싼 지세에

깊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지세의 설명과 '도선의 미륵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선과 대각을 모두 동원하여 선암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4) 이태호, 앞의 논문, 13~14쪽

5) '中有石鍾古跡 庭有兩寶塔 後有三浮屠鐵佛是遺蹟也'

先師들의 명망을 이용하여 선암사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중심사역 표현

조감법으로 묘사된 선암사는 전체의 배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회화에서 표현된 건축형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건축현상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⁷⁾

이 그림에서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뾰뾰히 들어선 수 십 동의 건물과 12세기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정형화된 배치의 상징인 회랑의 없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그려진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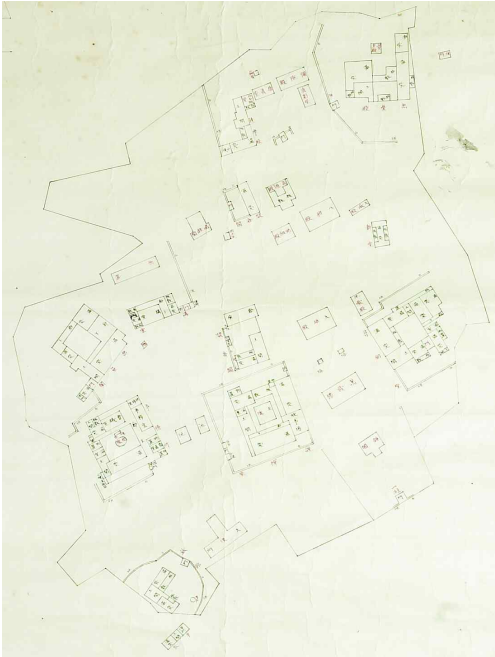
<그림 3> '대각국사중창건도' 중 선암사배치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진경산수화가 유행하던 시기를 거친 시점이라 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⁶⁾ '眞景'이라는 의미가 원래 '事實'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실적 표현'을

암사 안마당에서 앞으로 늘어선 산문들, '口字形평면'의 요사, 이층의 대법당과 그 뒤편에 '丁字形평면'의 건물, 조성된 시기가 분명한 승선교와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重修碑并序(1707)>(이하 중수비)가 관찰된다.

6) 이태호, 앞의 논문

7) 이층의 대법당을 단층의 건물이 우연히 겹쳐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별도로 다룬다.



<그림 4> 일제강점기 선암사배치도
(한국의 사찰문화재)

구체적으로 선암사의 배치와 특징적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해야 하지만 대체적인 배치의 형식과 눈에 띄는 건축요소들은 고려시대라기보다는 조선시대 중반이후의 특징이 훨씬 많이 발견된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전경사진 및 배치도와 비교해 봐도 주변의 부속 건물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심사역의 주요건물 등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선시대 선암사의 중창

선암사는 사찰의 규모와 오랜 역사에 걸맞게 여러 번의 중창이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자료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事蹟(1704)>⁸⁾(이하 사적기),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重修碑并序(1707)>(이하 중수

비)⁹⁾, <順天府曹溪山僊岳寺第六創建記(1828)>¹⁰⁾(이하 육창건기)와 각종 상량문 그리고 승려의 문집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각종 문헌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선암사 연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사적기와 중수비는 道誡(827~898)을 창건주로 보고 있으나, 육창건기에서는 阿道(?~?, 4세기 후반)를 창건주로 보고 있다.¹¹⁾

특히 육창건기는 앞의 중창기록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 조선시대의 선암사 중창을 정리하면 세 번의 중창을 확인할 수 있다.¹²⁾

3-1. 제4중창

정유재란으로 미륵전 대좌 밑에 있던 석종이 상하고, 철불·보탑·부도·문수전·조계문·변소만 남기고 모두 불타는데 이때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초의 복구 기록은 蒼波堂에 관한 기록이다. 광서9년인 1893년 상량문에 以前の 중수과정을 요약하여 적은 내용을 보면 승정4년(1631)에 선암사의 三和尚으로 알려진 文正(定)·敬俊·敬岑이 창과당을 중창하고, 다시 강

8) 권상로의 『朝鮮寺刹史料』에 실린 것을 참고하였다.

9) 권상로의 『朝鮮寺刹史料』에 실린 것과 문화재청의 <금석문중함정보시스템>을 비교하여 참고하였다.

10) 대응전에 걸린 것을 직접 참고하였다.

11) 김홍식, 「순천 선암사의 공간미학 - 조선 후기 선종의 공간미학을 중심으로-」 『문화재 제28호』, 문화재관리국, 1995

이러한 차이는 19세기 들어 송광사와의 범통을 둘러싼 경쟁에서 선암사의 초창을 높게 보려는 의도적인 변화로 본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2) 김홍식은 앞의 논문에서 조선시대를 정유재란 이후 4창, 1698년부터 1736년 비로자나불 조성까지를 5창, 1760년 이후를 6창, 1823년의 화제이후 복구를 7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1933에 발행한 『조선사찰 31본사사건집』을 보면 4창을 1660년에서 1698년까지로 보고, 5창을 1760년부터 시작된 8~9년간을, 6창을 1824년의 화제를 복구하는 몇 년간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육창건기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조선후기를 4~6중창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따랐다.

희24년(1685)에 중수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¹³⁾

顯宗元年(1660) 敬峯·敬俊·文定이 합심하여 십 수 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복구는 이뤄 놓는다. 이후 선암사를 外護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남겨 護巖子라고 불리는 若休(1664~1738)가 주도한 1700년 전후의 복구까지를 포함하여 제4중창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桂陰浩然(?~?)에 의해 사적기가 찬술되었고, 蔡彭胤(1669~1731)에 의해 중수비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사적기를 편찬하거나 중수비를 세웠다는 것은 일련의 중창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 대법당이 중창되었는가하는 문제이다. 중수비에는 1703년에 ‘修大法堂’이라고 하여 대법당을 수리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사적기에는 대법당을 미륵전의 옛터에 고쳐 세웠다고 되어 있다.¹⁵⁾ 이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미륵전의 터에 대법당이 들어서고 1703년에는 수리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의미 있게 파악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성루에 관한 내용이다. 無用秀演(1651~1719)의 『無用堂集』에 실린 「曹溪山仙岩寺迎聖樓記」에는 약휴가 住持를 맡고 있을 때 彦寬과 英敏 두 장로가 노력하여 辛酉年 봄에 공사를 시작하고 그 해 가을에 낙성하였다고 한다.¹⁶⁾

13) 「蒼波堂重創文」 ‘崇禎四年辛未仲夏 國一都大禪師兼出身文正敬俊敬峯三大老重創 厥後五十五年至大清康熙二十四年端蒙亦奮若臯月日重創’

14) 호암약휴는 12세에 침굉현변(1616~1684)에게 수계하였고 1698년부터 선암사에 머물면서 8년에 불사에 전념하였다. ‘청허휴정-소요태능-침굉현변’으로 이어지는 법맥이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15) ‘蓋因兵火傷石鍾故今改建大法堂於彌勒殿之古墟也’

그런데 이 기록에서 말하는 신유년이면 1681년이지만 이때는 약휴가 17세에 불과해 선암사와 같은 대찰의 주지를 맡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仙岩寺溪流洞昇仙橋碑銘」 등으로 파악해 볼 때, 약휴는 1698년부터 8년 정도 주지로서 불사를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선암사 大鍾이 1700년에 鑄鍾되었기 때문에 중을 걸어 놓을 大樓(영성루)의 중건은 辛巳年인 1701년 일 가능성이 크다.

4중창을 일단락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적기의 편찬과 중수비의 건립 이후에도 승선교를 1707년에 놓고, 다시 1713년에 중수하며,¹⁷⁾ 1719년에는 일주문인 조계문을 중창한다.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불화를 조성하는 불사도 활발하게 진행된다.¹⁸⁾

이외에도 1753년 괘불을 조성하였는데, 동시에 卍三조사탱 11폭, 영산탱 1폭, 미타탱 2폭, 현황탱 1폭, 제석탱 5폭, 천룡탱 5폭 등 총 7종 26점의 불화를 그려 산내암자는 물론 주변의 주요사찰에 까지 봉안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당시 선암사가 차지하는 지역 불교계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짐작하게 한다.¹⁹⁾

3-2. 제5중창

선암사는 英祖己卯에 발생한 화재로 40여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²⁰⁾ 이때 입은 피해

16) ‘樓之成 始於辛酉春 終於其年秋…此寺住持 名若休者’

17) 「仙岩寺溪流洞昇仙橋碑銘」 문화재청 <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참조.

18) 신광희, 「선암사 삼십삼조사도 연구」 『문화사학철학 제23,24호』, 한국불교사회연구소, 2010, 1481~53쪽

19) 이영숙, 「선암사 괘불과 복장당에 관한 고찰」 『문화사학 21호』, 한국문화사학회, 2004, 882쪽

20) 「五十殿重修上樑文」 ‘己卯年三月初旬 夜半偶然出火 大佛像及諸空殿諸衆寮 四十餘處盡爲燒燼慘愴之中…’

『선암사의 건축』, 선암사 성보박물관, 2007, 참조. 이후 별도로 출전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 이 책에서 참고한 상량문이다.

의 규모와 정도는 중심사역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타 거의 사찰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²¹⁾

이 결과 산과 사찰의 이름까지 바꾸게 된다. 조계산을 淸涼山으로, 선암사를 海川寺로 바꾸면서 庚辰年인 1760년에 大法堂, 冥府殿, 正門, 香爐殿을 겨우 짓고 남은 자재를 이용하여 辛巳年인 1761년에 五十殿, 圓通殿, 卅三殿을 지었다.²²⁾ 이외에도 팔상전의 상량문이 선암사에 남아 있고, 1780년에 지어진 원통전의 노전인 침성각 상량문도 남아 있다.

그리고 1797년 七殿의 상량문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사찰의 사정상 칠전이 기묘년 화재 복구 중 가장 늦게 이루어졌다고 적고 있다.²³⁾ 즉, 기묘년의 화재에 의한 사찰의 복구가 칠전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5중창은 1754년 선암사에서 개최된 화엄대회를 원만하게 회향한 霜月璽筭(1687~1767)과 西嶽等閑(?~?)의 노력으로 화재직후 8~9년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3-3. 제6중창

1823년 3월 하순에 다시 화재에 의해 1,100

여 칸에 달하는 건물이 피해를 입는다.²⁵⁾ 이때 입은 피해의 규모는 僧堂樑間錄을 보면 육창건기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佛宇 4동, 요사 6동 등 모두 10동에 이르는 건물이 피해를 입는다.²⁶⁾

이듬해 대웅전, 명부전, 정문(만세루), 향로전을 증건한 다음에 남은 자재를 이용하여 선당과 승당을 지었다고 한다.²⁷⁾ 이때 왕실의 재정적 도움과 지방관청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나온다.



<그림 5> 순천부조계산선암사제육창건기
(한국의 사찰문화재)

육창건기는 1828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화재 후 5년 만에 중창불사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로도 1832년 각황전의 화재와 1835년의 재건, 1844년 천불전의 중수, 원통전의 침성각 중수, 1893년 창과당의 중수 등 이후로도 불사들은 끊이지 않았다.

4. 건축요소 분석과 제작시기 압축

4-1. 건축 요소의 분석

1) 산내암자의 검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산내암자의 이름은 모

이 상량문은 불기2549년 伯賢이 옮겨 적은 것이다.

21) 1704년에 기록된 사적기에 등장하는 건물의 수가 법당 동쪽에 9동, 서쪽에 17동, 앞쪽에 4동, 뒤쪽에 14동으로 총 44동이다. 그리고 법당 주변(牆內)에 있지 않은 房과 庵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선암사의 중심사역에는 총 40여 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五十殿重勑上樑記」 ‘…庚辰年大法堂冥府殿正門香爐殿四處僅構 而少有餘財故至於今年五十殿圓通殿卅三殿三法堂成造…’

23) 「曹溪山仙巖寺七殿上樑文」 ‘殿運不齊 寺數不利 己卯火後僅得 復舊成樣 而獨有七殿 尚未及建’

여기서 七殿은 건물이 아니라 웅진당, 미타전, 달마전, 진영각 등으로 구성된 영역을 통칭하는 말이다.

24) 「順天府曹溪山僊岳寺第六創建記」 ‘…華嚴宗霜月璽封西嶽等閑二大師力圖光復首尾八九年…’

25) 「順天府曹溪山僊岳寺第六創建記」 ‘…禪家魔者又闖噴狂焰一千百有間殿宇經像盡入劫灰于時…’

26) 「仙岩寺僧堂樑間錄」 ‘上二十五年癸未三月晦不幸被畢方之災佛宇之四僧寮之六並皆燒燼也’

27) ‘翌年甲申春夏 大雄殿冥府殿正門樓香爐殿 僅得重建竣功 而惟此左右禪堂僧堂未及重做寤寐如結 豈武昌披之歎乎 是以渾寺老德斷金共謀 以法堂成造羨餘之物 召匠特做也’

두 18개이다.²⁸⁾ 이중에 비로암은 上·下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원암도 ‘庵’자 없이 上·中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청련대의 경우 ‘庵’대신 ‘臺’로 적혀있다.

중창건도記에는 ‘山庵十九’라고 적혀 있어 상·하비로암을 하나로 본 것인지 아니면 상·중내원을 하나로 본 것인지 또는 청련대를 암자로 셈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림의 창작시기를 추정할 만한 기록으로는 이간장이 쓴 「順天仙巖寺大乘菴重修記」이다. 이 기록을 보면 南庵인 대승암은 1716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²⁹⁾ 또한 선조암은 1933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사찰폐지 허가가 실린 것을 보면 1930년대에 선조암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³⁰⁾

1707년에 건립된 중수비에 나타나는 산중암자의 수는 13개로 중창건도에 기록된 암자의 수보다 6개 적은데 대승암이 1716년에 창건된 것을 감안하면 이 후로도 5개의 암자가 더 생겨난 뒤에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2) 승선교와 중수비

현재 승선교는 사찰의 입구에서 계곡을 건너는 홍예교로 창건에 관한 내용은 옆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 기록되어 있으며 중창건도에도 승선교과 승선교비가 그려져 있다.

승선교의 내력을 적고 있는 「선암사계류동 승선교비명」에는 1707년 ‘初創’이라고 적고 있고 1713년에 ‘重修’하였다고 적고 있다.³¹⁾

28) 寂滅庵, 香爐庵, 上毘盧庵, 下毘盧庵, 住道庵, 無性庵, 圓通庵, 上內院, 下內院, 日出庵, 白雲庵, 禪助庵, 隱寂庵, 東庵, 北庵, 西庵, 南庵, 白蓮庵, 修道庵, 青蓮臺로 모두 20개이다.

29) 『明美堂集』 卷10 「順天仙巖寺大乘菴重修記」 “距創庵時一百八十年矣”

30) 조선총독부 관보 제1930호(昭和) 1933.6.17. 발행.

31) 문화재청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의 「선암사승선교비」 참조.

‘初創始於赤猪之季冬 重修補於黑蛇之仲春’



<그림 6> 승선교와 승선교비(우측상단이 비)

그리고 중창건도에 표현된 선암사 중심사역의 우측 상단부에는 각황전 영역이 표현되어 있는데, 각황전 뒤쪽에 그려진 碑는 1707년 채팽윤이 찬한 중수비이다. 그러나 현재는 1921년에 세워진 <조계산선암사사적비>(이하 사적비)와³²⁾ 중수비(우측그림에서 좌측비)가 나란히 있는데 그림처럼 중수비 하나에 승선교와 동시에 표현되려면 이 그림은 1713년에서 1921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 된다.



<그림 7> 각황전과 중수비(左) 중수비와 사적비(右)

3) 산문체계

사적기에 등장하는 선암사의 산문체계는 대웅전 쪽에서부터 볼 때 ‘正門-鐘閣-大樓-曹溪門’순으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과도 매우 유사한 배치이다.

사적기와 중창건도에 등장하는 산문체계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살펴본다면 가장 아래가 조계문, 그 다음 7칸 중층건물인 대루, 그 다음 솫을문처럼 관찰되는 것이 종각이 되고 그

32) 계음언호의 사적기를 정리하여 金敎熙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8> 산문체계

안쪽의 3칸 건물이 정문이 된다. 이 그림에서 일주문인 조계문과 7칸의 대루, 그리고 3칸의 정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종각이 솟을문 형식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어쨌든 종각의 형식이 이례적이라는 점은 있지만 야외의식의 발달로 인해 문루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대루라고 불리는 문루(迎聖樓)가 정문과 함께 앞뒤로 배치되고 있는 것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대형사찰의 전형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다.³³⁾

육중창의 과정에서 정문으로 불리는 만세루가 5칸으로 증창되는 것도 바로 조선후기 중심사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원통전과 장경각³⁴⁾

원통전은 사적기에 의하면 1698년에 休公(호암약휴)이 창건한 것으로 당시 기록에도 丁字形평면을 가진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사적기에는 ‘建十字之一闕圓通其名也’라고 되어 있어 건물의 형태를 연상시킨다.³⁵⁾ 1759년의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60년에 증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⁶⁾

33) 홍병화, 「조선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사찰 중심영역의 배치 및 건축 계획의 변화과정」, 연세대 박사논문, 2009

34) 현재 선암사에는 장경각이 있지만 사적기에는 大藏殿, 일주문인 조계문 상량문에는 板殿이라고 나온다. 본고에서는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

35) ‘十字之一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분명 十字闕과는 다른 형태일 텐데, 관용적으로 십자에서 한 획을 뺐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수리할 때 출토된 상량문에 의하면 건물의 초창이 사적기의 기록과 같이 1698년이다. 그렇다면 원통전은 처음 지어지던 당시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면을 가진 건물은 산릉의 정자각



<그림 9> 원통전(불문연)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왕실의 願刹에서 사용되는 願堂형식에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³⁷⁾

하지만 1698년 원통전을 창건할 당시 왕실과 선암사의 관계가 알려지고 있지 않

아 왜 이 건물이 丁字形으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大藏殿은 사적기에 의하면 선암사의 동측에 배치



<그림 10> 원통전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건축형식은 알 수 없으며, 1719년 조계문 상량문에는 대장전 대신 板殿이 나온다. 성격상 유사한 건물로 생각되지만 대장전은 경전을, 판전은 경판을 봉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암사에 소장하고 있는 목판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판각된 것이 대부분으로 총 26종 835판이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 1768년 선암사의 다른 이름인 해천사 開板의 ‘팔만대장경목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판과 함께 印經된 팔만대장경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전이지만 대웅전수리보고서에 실린 내용

36) ‘오십전’ 및 ‘팔상전’ 상량문 참조. 「불교사 불교 제23호」, 1926

37) 홍병화, 앞의 논문, 27~32쪽



<그림 11> 장경각으로 바뀐 축성각(조선고적도보)

에 의하면 현재의 장경각은 축성각이었다고 한다.³⁸⁾

『조선사찰 31본사사진첩』에 실린 선암사의 전경 사진인 <그림 12>을 보면 중층

의 건물이 작게 보이는데(좌측 화살표) 이 건물이 축성각이 바뀐 장경각이다. 정확히 언제 장경각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李東碩이 선암사의 주지를 맡았을 때 1층으로 개조하면서 같이 바꿨을 것으로 보인다.³⁹⁾

이 건물에서 순조를 비롯한 여러 왕실인사의 명복을 빌었다는 점을 보면 축성각은 순조의 死後인 1835년 이후에 지어져 이동석에 의해 단층으로 바꾸는 1930년대 후반까지 운영되었던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1933년 축성각(左)과 원통전(右)

5) 칠전영역

5중창의 계기가 된 영조기묘년의 대화재로 인해 칠전까지 화재를 입었다. 중건이후 현재까지 건물의 구성이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칠전은 현재 선원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건물의 구성으로 볼 때도 師僧을 존송하며 참선수행하는 공간이다. 이는 인근 송광사의 국사전 및 하사당 영역과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 주불전의 후면에 마련되는 僧寶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칠전영역

「조계산선암사칠전상량문」을 보면 1759년의 화재이후 대부분의 건물이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칠전만은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797년 海鵬殿翎(?~1826)이 권선문을 지어 化主를 하여 ‘七宇重成’하였다고 한다.⁴⁰⁾

상량문의 내용을 보면 칠전을 복구하면서 5중창이 완료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묘년 화재이후 칠전이 다시 서기까지는 38년이 걸렸다.⁴¹⁾

6) 대형요사

선암사의 규모가 조선후기에는 대형사찰의 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중창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1754년 『海珠錄』에 의하면 상월세봉은 1,287명의 대중을 모아 놓고 화엄대회를 3주간이나 거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대중이 머물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이기 위해서는

38) 『선암사 대웅전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122쪽

이곳에 실린 내용을 보면 2002년 당시 선암사 주지(指墟)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장경각이 원래는 祝聖閣이었으며 사도세자, 정조, 순조의 복을 빌었다고 한다.

39) 문화재청, 앞의 책, 85쪽

40) 『선암사의 건축』, 선암사 성보박물관, 2007, 142~147쪽

41) 주 23참조. 이 상량문의 내용에 의하면 칠전의 복구가 기묘년 이전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불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림 14> 중심영역의 '모자형'대형요사

대형요사가 필수적인데, 종창건도에 나오는 대형요사 중 '모자형'평면을 갖추고 있는 건물만 9동에 이르고 있으며, 『해주록』에 기록된 방함록의 사람이 기거했던 당우이름만 최소 16개 정도가 파악된다.⁴²⁾ 여기에 기록된 건물명과 그에 속하는 인원수는 화엄대회에 참여하는 동안 머물렀던 건물과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주록』이 작성된 1754년이면 요사가 대형화를 이루어가던 시기로 다양한 용도의 실이한 건물로 모여드는 경향에 의해 형성된 대형요사는 조선후기 사찰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⁴³⁾

7) 대법당

종창건도에 나타난 대법당은 이층전각으로 볼 수 있다. 하층에 합각이 표현된 점을 들어 앞뒤의 건물이 절묘하게 겹쳐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가가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해서 이처럼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⁴⁴⁾

42) 上室, 地藏殿, 寂默堂, 霧集堂, 明鏡堂, 藥師殿, 蒼波堂, 七殿, 無憂殿, 極樂殿, 消災殿, 背面堂, 獨樂堂, 彌陀殿, 滿月堂, 白蓮堂 등 16개 건물이름이 보인다. 이중에 지장전, 약사전, 극락전, 소제전과 같은 것은 불전이 아닌 함께 딸린 爐殿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 상당수가 '모자형'대형요사였을 것이다.

43) 홍병화, 앞의 논문, 97~105쪽

44) 『선암사 대웅전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79~86쪽

종창건물은 하층에서 합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현재의 대웅전은 공포양식으로 볼 때 육중창 당시의 건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4중창 또는 5중창 당시 대웅전의 중층이 여부가 중요하게 된다.



<그림 15> 대웅전 공포

4중창 이후 기록된 사적기의 내용을 보면 석종이 佛臺座 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높이는 10여 척, 둘레는 한 아름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⁵⁾

그런데 중수비에는 석종이 곧 미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적기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⁴⁶⁾



<그림 16> 대법당

그리고 사적기에는 兵火로 인해 석종이 상해 미륵전의 옛 터에 대법당을 짓는다고 적고 있으며,⁴⁷⁾ 이때 지은 대법당의 규모에 대해서는 중

수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전의 규모를 감안해 우뚝 솟게 하였다'는 것이다.⁴⁸⁾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중층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뚝 솟았다는 묘사만으로 중층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의 규모가

어 교묘하게도 앞뒤가 겹쳐진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이러한 표현상의 문제점은 이 그림 곳곳에서 발견된다.

45) '今大法堂佛座下有一石鍾高十餘尺大數圍餘其爲鍾也'

46) '獨古之所嘗殿而覆石鍾曰彌勒也'

47) '蓋因兵火傷石鍾故今改建大法堂於彌勒殿之古墟也'

48) '若殿若圭若樓閣方丈以還峙大法堂其中皆按其故也'



<그림 17> 대웅전 본존불
(한국의 사찰문화재)

216cm로 비교적 큰 규모의 불상이라서 중층불전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선운사나 완주 송광사, 갑사 등 이보다 더 큰 불상도 현재 단층불전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상을 가지고 중층이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불상의 권선문을 보면 작성시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此實靈山之法會 豈但海天之道場’라고 선암사를 ‘해천의 도량’이라고 칭하고 있고 ‘肇基羅代道誥之古刹’이라고 창건주를 도선으로 적고 있어 5중창 직후의 권선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6중창 대웅전 상량문은 두 종류가 전해지지만⁴⁹⁾ 모두 대웅전의 층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대법당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 석종의 규모로 보아 정유재란 이전 대법당은 이층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석종 훼손 이후 중건된 대법당이 중층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최근의 해체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불대좌와 화대석의 최대 폭이 4m에 육박하는 것으로 봐서 이 대좌를 사용하던 시기는 분명 대형불상이 봉안된 중층불전이었을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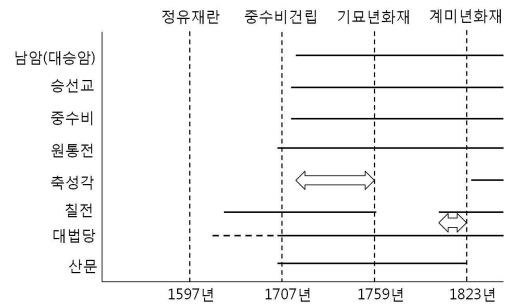
재의 불상이 5중창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5중창 직전까지는 중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4-2. 제작시기 압축

지금까지 검토한 중창건도에 나타난 건축요소에서 창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口자형’의 대형요사가 표현된 점, 정자형평면의 원통전이 표현된 점, 중수비만 표현된 점, 승선교와 비가 표현된 점, 중층의 축성각이 없는 점, 남암인 대승암이 표현된 점, 칠전영역이 표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그림의 조성시기를 비정하는데 1716년에서 1921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8>을 보면 중창건도에 나타난 중요 건축요소를 검토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남암이 세워진 1716년부터 칠전이 소실되기 이전인 1759년까지이다.



<그림 18> 건축요소의 검토를 통한 시기추정
(화살표범위가 추정시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칠전이 중건된 1797년부터 ‘정문-종각-대루-조계문’순으로 정해진

49) 현재 대웅전의 상량문은 ‘曹溪山仙巖寺大雄殿重修上樑文’과 ‘順天仙巖寺大雄殿重建上樑文’이 있다. 중수상량문은 1824년에 김정균이 쓴 것이지만 중건상량문은 권상로의 『한국사찰사건』에 실려 있으며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중건상량문에 ‘昨年三月’에 일어난 화재라고 적혀있지만 기묘(1759)년 화재도 삼월초순에 일어났고, 계미(1823)년 화재도 삼월그믐에 일어나서 중건상량문도 1823년 화재후 6중창의 상량문임을 알 수 있다.

50) 『선암사 대웅전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이 보고서에 대좌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구조석 부호도’에 실린 도면을 통해 대좌의 치수를 확인할 수 있다.

산문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시기로 현재 만세루가 세워지면서 이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산문체계가 그림처럼 유지되는 시기는 결국 계미년화재 이전이다.

이처럼 중창건도에 나타나는 건축요소와 현재의 건축을 비교한 결과 이 그림은 '1716년~1759년' 사이이거나, '1797년~1823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불교계 상황과 선암사의 대응

5-1. 조선후기 불교계

조선후기 불교사에서 호남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역동적이었음은 여러 가지 사료로 알 수 있다. 특히 浮休善修(1543~1615)系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잇고 있으며, 이와 양립하는 淸虛休靜(1520~1604)系의 鞭羊(1581~1644)派와 逍遙(1562~1649)派는 대둔사(現 해남 대흥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⁵¹⁾

조선후기는 參禪과 看經을 동시에 공부하는 敎學兼修의 경향에 念佛을 포함하는 三門修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기로 교학의 중심은 화엄이었다. 당시 빈번하게 행해진 화엄대회를 통해 화엄사상이 불교계에서 얼마나 중요시 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⁵²⁾

51) 청허휴정과 부휴선수는 모두 芙蓉靈觀(1485~1571)의 동문제자로 향후 부휴계와 청허계로 분창한다. 특히 청허계는 편양파와 소요파로 분창하는데 묘향산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삼남 지방으로 남하한다. 부휴계는 17세기 초 송광사의 중장을 위해 그곳에 자리 잡은 후 지금까지 범맥을 잇고 있다. 여기서 청허계는 西山系로도 통용되었으나, 別號인 서산보다는 堂號인 청허계로 칭하는 것이 불교사학계의 합의로 보이기 때문에 이 논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필자 요약.

52) 김진현, 「화엄대회를 통해 본 조선불교사 재고」 『한국불교학 제59집』, 한국불교학회, 2011, 129~162쪽 이 논문에서는 화엄의 圓融會通의 정신이 당시 불교계를 통합하는 중요한 이론적 바탕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화엄경 공부에 강조되었다고 한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화엄대회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여 회 정도 열었다고 한다.⁵³⁾ 특히 18세기 대둔사가 강학에서 보여준 활약은 당시 불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이처럼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이후의 불교계는 호남을 중심으로 부휴계와 청허계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⁵⁵⁾

선암사에서는 부휴계의 栢庵性聰(1631~1700)에 의해서 1692년에 滄波閣에서 화엄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⁵⁶⁾ 17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청허계 소요파의 호

53) 앞의 논문, 136~144쪽

이 논문에서는 1607년 靑蓮圓徹(?~?)이 주도한 화엄대회에서 1826년 會溪輝宗(1759~1835)가 주도한 화엄대회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30여회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나타난 會의 성격상 불분명한 부분 때문으로 보인다.

54) 이종수, 「조선후기 대둔사 顯暢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50집』, 2011 이 논문에서는 대둔사의 현창 운동은 송광사가 승보사찰로 인식되어 가는 현실에 자극받은 의도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

김용태, 「조선후기 대둔사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 『보조사상 27집』, 2007 이 논문에서는 18세기 조선 불교계를 주도하던 淸虛系 鞭羊派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둔사의 표충사 건립과 이를 통한 '宗院'의 표명이라고 한다.

55) 浮休系는 '碧巖覺性-翠微(守初)-栢庵聖聰-無用秀演-影海若坦-楓庵世察-默庵最訥-幻海法璘'으로 이어지며 이중 목암최눌(1717~1790)이 성종과 세찰의 선양과 추송에 적극적으로어서 계파인식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용태, 「부휴계의 계파인식과 보조유풍」 『보조사상 25집』, 2006

청허계는 평양파와 소요파가 대표적인데 이중에서도 편양파가 주류를 형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편양파는 楓潭義謙-霜峰淨源-月渚道安-喚樾志安-雪巖秋鵬-霜月璽筠-雪坡尙言-蓮潭有一-仁巖義沾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 청허계는 부휴계에 비해 범맥의 정리가 쉽지 않은 편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문증이 번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휴계의 분명한 청허계보다는 소수이면서 단일한 문증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병삼, 「조선시대의 호남불교 연구의 성과와 전망」 『불교학보 제59집』, 2011 에서 발췌.

56) 『동사열전』 백암각성 내용 참조.

암약휴가 선암사 주지였는데, 이때 지어진 「曹溪山仙岩寺迎聖樓記」도 부휴계의 無用秀演이 작성하였다.

이후 다시 선암사에서 화엄대회가 크게 개최되는데 그때는 청허계 편양파의 霜月璽筭이 주관한 것으로 각각 1734년과 1754년이다.⁵⁷⁾ 바로 이 시기는 송광사에서 默庵最訥이 부휴계 先師를 선양하면서 계과의식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이다.⁵⁸⁾

이는 18세기 후반 편양파가 주도하고 있던 대둔사의 宗院표명파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⁵⁹⁾ 1700년경 백암성총의 창과각 화엄대회나 무용수연의 영성루기 작성을 보면 당시 계과와 계과의식은 있었지만 상호 존중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초반을 거치면서 부휴계와 청허계의 경쟁의식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5-2. 선암사의 상황

조선후기의 불교계 내부의 상황은 화엄대회를 통한 교리와 사상, 수행방법의 통일에 성과

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범통의 구분을 통한 문중간의 경쟁이 교리와 수행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경쟁보다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士林의 공세가 지속 되다가 兩亂과 明清교체기를 계기로 조선후기에 조성되는 儒佛간의 새로운 국면도 당시 불교계의 중요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⁶⁰⁾

불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교와의 공통점을 강조하거나 유교의 장점을 받아들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충효강조, 僧葬禮에서 유교제례 수용,⁶¹⁾ 승가의 강원 교육제도에서 유교적 제도 수용⁶²⁾등이며, 이외에도 元으로부터 수용한 성리학처럼 당시의 선종인 임제종도 元으로부터 받아들였다는 유래의 공통점을 들어 臨濟太古法統說을⁶³⁾ 내세우는데 이것도 유불간의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⁴⁾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승가내의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57) 남도불교연구원, 「선암사」, 1993, 42쪽

당시의 화엄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海珠錄』은 총 1,287명의 출·계가자의 명단을 적고 있다. 상월은 입적 후 발견된 구멍 난 구슬 3개 중 하나를 오도산에 모시고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선암사와 대둔사에 안치하였다고 하는데, 이 점을 보면 당시 선암사와 대둔사의 관계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58) 송광사는 부휴계의 전법중지와 보조지눌을 현창하는 이중적 인식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이의 일환으로 1678년 「松廣寺嗣院事蹟碑」와 「普照國師甘露塔碑」를 세운다. 그리고 18세기 중반 목암최눌에 와서는 백암성총의 탑비를 세워 「백암성총으로 이어진 臨濟(조선시대 禪宗의 명칭)의 범맥을 풍암세찰이 이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파에 대한 의식의 일면을 볼 수 있다.

59) 김용태, 「조선후기 대둔사의 표충사 건립과 '종원' 표명」 『보조사상 27집』, 2007

17세기 후반 청허계 편양파는 대둔사와 관계를 맺게 되고 청허휴정의 衣鉢(가사와 발우)이 대둔사에 전해지는 것을 계기로 청허계 편양파와 소요파가 중심이 되어 18세기 후반 대둔사에 표충사가 건립하고 대둔사를 '宗院'이라고 선언한다. 이는 편양파를 중심으로 대둔사가 조선훈교의 중심사찰임을 선언하는 顯暢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60) 김방룡, 「16~17세기 조선선의 확립에 미친 유불교 접의 영향과 그 의의」 『동서철학연구 제59호』, 2011

61) 김순미, 「〈석문가례초〉의 오복도 연구」 『영남지 제18호』, 영남문화연구원, 2010

62) 남도영, 「승가교육사와 강원」 『강원총람』, 불학연구소, 1997, 34~36쪽

63) (임제)태고법통설이란 '石屋清瑛-太古普愚-幻庵混修-龜谷覺雲-登階淨心-碧松智儼-芙蓉靈觀-淸虛休靜'으로 임제의 범맥이 이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17세기 후반 청허계가 주장하고 부휴계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부휴계의 증흥을 이끈 백곡처능이 「追加弘覺登階碑銘并序」에서 '임제의 24세 적손이 있으니 바로 부휴이다.'라고 명기하게 된다.

64) 16세기 조선사상계는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정몽주와 길재에서 조광조로 이어지는 우리나라만의 道脈을 주장한다. 그리고 淸이 들어서고 나서는 송시열에 의해 小中華의식이 나타난다. 즉, 도가 중화에서 우리나라로 옮겨왔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양반사회의 신분혼란 속에서 문중(족보)을 중요시하는 경향(譜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系脈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쳐 元의 石屋清瑛(1272~1341)에게서 법을 받아 왔다는 태고법통설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요약, 주63 참조.

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정가능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18세기를 거치면서는 송광사에서는 부휴계의 계파의식 강화에 대한 조치들이 가지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완주 송광사에서는 1755년에는 부휴계의 碧潭幸人(1721~1798)이 『불조원류』에서 부휴계가 소략하게 다뤄지고 편양파가 비중이 큰 것에 불만을 품고 판목을 불태워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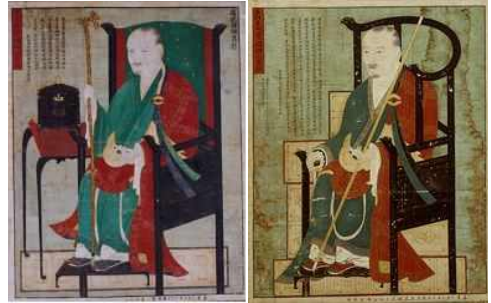
불교계의 다수파인 청허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부휴계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법통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송광사의 계파의식은 남달랐을 것이다.⁶⁶⁾ 이에 선암사는 바로 인접한 사찰로서 비록 다수파인 청허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인접한 송광사의 활동에 가장 부담감을 느끼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당시 선암사의 내·외부 상황은 송광사의 법통을 중시하는 의식을 자극하였고, 이에 대한 문중간의 경쟁은 다양한 형태로 조선후기 불교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5-3. 선암사의 대응

법통의식의 강화를 위한 선암사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도화상 창건설이다. 이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淸虛后人(청허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밝힌 龍巖慧彦(1783~1841)이 쓴 육창건기이다.

이외의 기록으로는 일제강점기 猊雲散人 崔



<그림 19> 도선과 대각의 진영(문화재청)

東植이 쓴 약휴의 전기를 보면 약휴가 阿道·道誑·大覺 三册主의 영각을 지었다고 나온다.⁶⁷⁾ 그러나 이 기록은 신뢰하기가 힘든 기록으로 약휴가 주지를 하던 시기는 1700년경이다. 그러나 5중창인 1760년경에 작성된 대웅전 석가모니불의 권선문에도 ‘道誑之古刹’이라고 하여 창건주를 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선암사와 아도화상이 연결되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기록한 예운산인의 기록은 후대의 윤색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 선암사에 소장하고 있는 진영 중에 1805년에 조성된 도선국사와 대각국사의 진영이 있는데 각각 2중창주와 3중창주로 기록하고 있어, 아도화상을 창건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아도화상 창건설은 1760년 이후에서 1805년 이전에 등장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운산인이 쓴 약휴의 전기를 통해서 20세기 초만까지도 선암사에서는 법통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선암사에 소장된 고승의 진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선암사에 소장중인 아도화상의 진영은 근대기에 다시 그려진 것으로

65)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의 줄인 말로 인도와 중국의 거쳐 한국에 이르는 불교의 道統을 기록한 책이다. 현존하는 책은 편양파의 獅巖采永(미상)이 1764년 편찬한 것으로 『조계고승전』의 「조계종사벽담선사전」의 내용에 의하면 벽담행인은 부휴계가 소략하게 실린 것에 대한 불만으로 以前 판본을 불태웠다고 나온다. 김용태, 「부휴계의 계파의식과 보조유풍」 『보조사상 25집』, 2006, 주 50 참조.

66) 김방룡, 앞의 논문, 325쪽, ‘주9’의 내용 인용. 현재 불교계에서 청허계가 90%, 부휴계가 10%라고 한다. 이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몰라도 청허계가 다수, 부휴계가 소수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67) 예운산인, 「昇平府仙巖寺重創主護巖堂若休大師傳」 『조선불교계 2권』, 불교진흥회본부, 1917

창건주에 대한 지속적인 추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진영들에서도 부휴계로 알려진 승려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봐도 이 같은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⁶⁸⁾

다음으로는 대각국사에 대한 강조이다. 송광사는 보조지눌에 의해 중창되어 고려후기와 조선 초기에 이르는 동안 16국사를 배출한 사찰로 유명하다. 중흥조로서 보조의 유풍을 강조하면서도 石屋清珙(1272~1341)으로부터 범을 이은 太古普愚(1301~1382)를 종조로 하는 太古法統說을 수용한 것이다.

즉, 종교적 전통은 보조지눌을 잇고 있다고 하면서도 법통은 태고보우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元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하게 된 유불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암사는 대각국사를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각국사의 추승에 관한 선암사의 움직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이른 것은 「高麗國大覺國師殿記」이다. 이 기록을 보면 선암사에는 이미 국사전이 있었으며, 이 터에 다시 대각국사전을 중건한다고 되어 있다.⁶⁹⁾

그리고 예운산인의 지은 약휴의 전기에 三

68) 삼화상진영(지공·나옹·무학, 1904), 淸虛堂(1904), 四溟堂(1904), 護巖堂, 西巖堂, 虎巖堂, 萬化堂, 霜月堂, 訥庵堂, 海鵬堂, 雪月堂, 太虛堂, 大雲堂(이상 조선후기), 金庵堂(1864), 枕溟堂, 鐵鏡堂, 函溟堂, 甌潭堂(이상 조선후기), 函鏡堂, 景鵬堂, 雲岳堂(이상 1917), 華山堂(근대), 擎雲大禪師, 淸昊堂(이상 1917), 幻月堂(1881)
 이상은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전남』(2005)에 실린 순서와 편년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69) 『조선불교총보 제9호』, 1918

이 기록은 사료비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백암성총이 강희31년인 1692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승통이 약휴이다. 승통이라는 승직은 당시 교단을 통솔하는 자리로 약휴의 나이가 28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 중에 '山以曹溪 易淸涼而號之'라고 하여 산 이름을 조계산에서 청량산으로 바꾸었다는 부분이 나온다.

耑主(아도·도선·대각)의 진영을 봉안하는 영각을 세웠다는 내용을 보면 先師의 추승에 대각국사가 꼭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적이지만 '송광사:선암사=보조:대각'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선암사의 경우 송광사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각국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아도화상을 끌어들이어 송광사와의 寺格경쟁까지도 회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대각국사중창건도’는 조계산 전체를 표현하였다기보다는 선암사를 중심에 놓고 주변의 산 내암자가 배치된 범위를 그린 조선후기 寺刹圖의 일종으로 선암사 寺域을 표현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이 그림에 표현된 건축요소를 실제 선암사의 변화와 비교하여 그림의 제작시기로 추정되는 기간을 압축하였고, 당시 선암사가 처해진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좀 더 정확한 시점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축요소를 통해 추정해본 시기는 18세기 전반과 19세기 초반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8세기 중반 기묘년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송광사의 부휴계가 계파의식을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오던 중 그 영향이 청허계가 자리 잡고 있던 선암사까지 직접적으로 미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불교계 전체로 보면 청허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조계산에서는 송광사의 영향력과 활동으로 인해 선암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불교계 전체가 처해있던 유교와의 관계를 포함한 시대적 상황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는 계파의식이 성장하기 이전인 1700년경을 지나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된 18세기 중반으로 霜月璽筭에 의해 1,287명의 대중이 모여 선암사에서 3주간이나 화엄대회를 열던 시기일 것이다.

수많은 대중을 수용하기 위한 대중공간이 필요하던 시기로 선암사의 사세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는 그림에 표현된 다양한 건축요소의 검토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선암사의 청허계 승려들은 그 시점을 포착하여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은덕은 先師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구체적으로 창건주인 도선과 중창주인 대각이 추승과 강조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후 선사의 추승을 통한 범통강조 경쟁은 더욱 심해져서 아도화상 창건설까지 확대되었다.

만약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 이전에 아도창건설이 등장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그림에 아도화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대각국사중창건도'는 당시 한창 번창하던 순간의 선암사를 기록한 그림으로 된 事蹟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선후기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불교의 일면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림인 셈이다.

<참고문헌>

1. 이영숙, 『선암사』, 승주군, 1992
2. 김재식, 『조계산 선암사의 택지 및 공각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 1997
3. 김왕직, 「Ⅱ. 역사 및 건축」 『선암사 대웅전 수리 및 실측보고서』, 2002
4. 이태호, 「일제강점기에 전승된 開花形 사찰지도 - 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의 전경도 및 그 형식적 연원에 대하여-」 『고지도연구학회지 제2권 제2호』, 2010
5. 김홍식, 「순천 선암사의 공간미학 - 조선 후기 선종의 공간미학을 중심으로-」 『문화재 제28호』, 문화재관리국, 1995
6. 김진현, 「화엄대회를 통해 본 조선불교사 재고」 『한국불교학 제59집』, 한국불교학회, 2011
7. 선암사 성보박물관, 『선암사의 건축』, 2007
8. 김용태, 「'부휴계'의 계파인식과 보조유풍」 『보조사상 25집』, 2006
9. 정병삼, 「조선시대의 호남불교 연구의 성과와 전망」 『불교학보 제59집』, 2011
10. 남도불교연구회, 『선암사』, 1993
11. 홍병화, 「조선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 사찰 중심영역의 배치 및 건축 계획의 변화과정」, 연세대 박사논문, 2009

접수(2012. 4. 9)

수정(1차: 2012. 5. 28)

게재확정(2012. 6. 4)

A Study on 'Monk Daegwak's Joongchanggundo' at Seon-Am Temple

-Mainly about the Time of Drawing and Background-

Hong, Byung Hwa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ere is a temple drawing called Monk Daegwak's Joongchanggundo at Seon-Am Temple of which the time of creation is unknown. This drawing shows the details of Seon-Am Temple and surrounding areas well, which helps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of Seon-Am Temple and other small mountain temples.

The records on the top also describe the surrounding landscape in the Fengshui aspect, and describes the number of buildings at Seon-Am Temple.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tyle that gives clues about the age of this drawing, the time range can be narrowed down in order to approximate the age of this drawing through the Buddhist trends of Seon-Am Temple.

In the results, it was estimated that the drawing dates back to the time when Seon-Am Temple flourished in the mid-18th Century as it's competition with the temple of Songgwang actually began. Buddhism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principals were delivered through this relationship. Therefore, the activities to increase the connection between monks and this drawing were created in order to indicate the atmosphere of the Seon-Am Temple of the time.

Keywords: Temple of Seon-Ahm, Temple of Songgwang, Monk Daegwak, Monk Doseon, Cheonheo Line, Buhyu Line, Monk Ahdo
